

해양문화연구 창간호 1996년 2월

## 『노인과 바다』에 관하여

박 정 길\*

### 1.

1954년 스웨덴의 한림원은 Earnest Miller Hemingway(이하 헤밍웨이)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면서 그를 지명한 이유로 『현대소설 서술예술의 정통』 - mastery of the art of Modern narration - 을 수상의 공적으로 내세웠다.

Lost generation의 대표적 작가로서 그가 추구하는 문학 정신은 삶에 대한 자신의 행동가적 철학을 소설 속에 담는 일이었으며, 그것도 스스로의 도전적 체험에 의해 '인생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정직하게 알리는 일' - "이 그가 소설을 쓰는 의미의 전부였다.

그의 문학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1920년대부터 일찌감치 일단의 after generation group이랄 수 있는 미국의 후배 작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세계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리만큼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

그는 "이 시대 특유한 표현 양식을 창조" Who created the characteristic idiom of the time.<sup>2)</sup>한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간결하고도 평이한 어휘, 반복되는 서술에서 발견되는 빠른 흐름, 여기에다 그는 불퇴전의 인간상을 그려 넣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행동의 심정적 표현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자연, 그리고 여러가지 상징물어 어우러진 비정적인 외면묘사로 자기행동의 억제된 폭발력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영미소설)

1) Frederick J. Hoffman, *The Modern Novel in America*. p. 174.

K. V. by Joseph Chu. 1951. Seoul Korea.

2) Walter Allen, *Tradition and Dream*, p. 92. Phoenix House, London, 1968.

을 서술 예술에의 정통으로 칭송된 문체 - Hard boiled style - 에 담았다.

'Hemingway' s words strike you, each one, as if they were pebbles fetched fresh from a brook. They live and shine, each in its place. So one of his pages has the effect of a brook - bottom into which you look through the flowing water. The words form a tessellation, each in order beside the other.' cf.<sup>3)</sup>

그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도 압축되고 단순화된 글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또한 이를 서술 기법의 최상의 방법으로 삼아 일관되게 자신이 추구한 작가적 목적을 추구함에 탁월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1952년 *The old man and the sea*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인간의 삶을 nada로 보았던 초기의 주인공들에게서 목격되는 nihil의 세계만이 그 전부는 아니었다.

소설은 흔히 말하고 있는 절망과 허무로 알려진 자기 사상의 부정적 비전에서 나와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의욕으로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해 보려는 긍정적 비전으로 돌아선 이념을 옹호하고 있었으며, 절망과 허무를 극기적 노력으로 넘어선 용사의 겸허한 만족감이 노어부의 신념에 찬 도전적 기상과 아름다운 용기를 통해 차분히 그려져 있었다.

Hemingway가 창제한 주인공들은 그 어떤 고통이나 역경에 처해서도 의연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행동 규범을 갖고 있다. 그와 같은 행동 규범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원류라 할 수 있으며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오는 노어부 Santiago도 헤밍웨이가 만들어 낸 이같은 행동규범을 지키는 Code Hero중의 한사람이다.

이 글은 따라서 Santiago라는 노어부에 관한 작가의 압축된 제표현이 그의 독특한 서술 양식 속에 폭발 직전의 상태로 묻혀있는 주인공에 대한 행동 정서를 읽어보려는 데 있으며, 패배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비겁하지 않은 도전적 의욕을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보았던 헤밍웨이가 노어부 Santiago에

3) Walter Allen, 앞의 책, p. 64. cf Ford Madox Ford의 말을 W. Allen이 재인용한 것임.

게서 구하고자 하는 투쟁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삶의 행동 양식을 추적해 보고 그 속에서 작가가 의도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과 소년간의 소멸할 수 없는 동반자적 인간애와 노인과 돛새치(Marlin) 간의 사활을 건 대결에서 표현되고 있는 삶에 대한 노인의 시각과 자세, 그리고 상어와의 대결에서 노인이 느끼는 황폐한 상실감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적 승리, 그 불패의 결의를 이끌어 내는 자긍심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순서로 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Santiago 그는 누구인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는 카리브해 - Gulf stream - 를 무대로 낚시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노어부일 따름이다. 그런데 노인의 저 깊은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강렬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설은 서두부터 매우 동정적인 시각으로 그의 처지를 그려 나가고 있다 ;

He was a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t Stream and he had gone eighty - four days now without taking a fish. In the first forty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But after forty days without a fish the boy's parents had told him that the old man was now definitely and finally salao,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and the boy had gone at their orders in another boat which caught three good fish the first week."

그 Santiago에게는 시름을 달래주고 잔 신부름으로 그를 돌보아주던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러나 84일간이나 고기 한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최악의 불운 - salao - 에 빠진 노어부에게서 그만 그 소년을 떼 놓았다.

노인은 "여기 저기를 기웠고, 그것을 말아들면 영원한 패배의 깃대"로 보이는 돛에 의지한 채 날마다 바다로 나간다. 그런데 85일째가 되던 날 노어부 Santiago의 낚시에 마침내 거대한 돛새치 marlin가 걸려든다. 2주야의 사투 끝에 노어부는 거대한 돛새치를 배에다 매달고 포구로 향한다. 그러나 귀로에 만난 상어떼에게 자신의 육신과도 같은 돛새치의 살점을 모두 다 뜯기고, 포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오직 뼈만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4) Earnest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p. 07. 3rd Edition, London, 1957.  
이후 본 Text의 page를 본문에 기입함.

It was then he knew the depth of his tiredness. He stopped for a moment and looked back and was in the reflection from the street light the great tail of the fish standing up well behind the skiff's stem. He saw the white naked line of his backbone and the dark mass of the head with the projecting bill and all the nakedness between.111

종장에 이르러 노인은 이런 말을 한다. “배는 무사하다.” “그거야 쉽게 갈아 달 수 있다.” “바다는 우리의 친구도, 적(enemies)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포구에 닿았을 때 기력을 다시 찾은 그는 돛대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배의 깃발로만 보였던 누더기의 돛이 불사신의 상징물로 윤색 된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헤밍웨이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theme였던 명예, 즉 Santiago 노인의 명예가 “인간은 무엇에 의해 살며 무엇에 의해 죽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조건의 물음으로 비춰보아도 결코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패배했노라고 자책하는 노인의 옆에서 할아버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것이라며 노인의 그 장한 투혼을 옹호하는 소년 Manolin의 말에서 이런 생각을 좀더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극한 상황을 싸워서 헤쳐온 Santiago 노인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소년 Manolin의 옆에서 잠에 취해 이따금 그랬듯 아프리카 해안의 사자에 대한 꿈을 다시금 꾸고 있다.

과연 노인은 패배한 것일까? 이야기의 귀결로 보아 헤밍웨이가 초기작품에서 규정되고 있는 허무의식이 여기서도 예외없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헤밍웨이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돛새치를 잡았으므로 ‘승리’ 했고 그것을 상어떼에게 모두 빼앗겨 가진 자에게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 털털이가 되었으며 육신마저도 가누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해서 ‘패배’ 했다고 하여 그 승부를 명쾌히 하고자 하는 이분적 구도에 그 뜻이 있지 않음을 주목하게 된다.

헤밍웨이는 여기서,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느 쪽이 더 위엄이 있고 비굴하지 않는 용기를 실현해 내고 있으며, 어느 쪽의 용기가 질적으로나 관념상으로 보아 더욱 더 사 줄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에 유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같은 행동규범을 노인과 돛새치가 벌이는 쟁투의 전과정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양자가 펼쳐보이는 투혼에서 발견되는 생명력의 원천이 위엄과 함께 하는 용기에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대결이 승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승패의 의미를 초월하는, 그래서 그 승고한 불패의 의지를 진정한 용기로 간주하고 그것을 승리라는 이름으로 돋보이게 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헤밍웨이는 노어부 Santiago로 하여금 그가 체험했던 절망과 참담한 격통, 그리고 죽음이 전제된 대결의 순간까지도 상대에게 그 무슨 혐오라거나 적대의 식을 갖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지애적 일체감이 어린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Santiago에게서 이따금 보여지는 허무라거나 소외라는 말의 의미는 그 진의가 이 말을 잇기 위한 노력의 반의로 여러번의 행동과정에서 매우 강렬하게 묘사되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또한 자기의지의 강도를 설명해 내려는 비유어로 쓰이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작가적 관심사는 Santiago가 펼쳐 보이는 action의 세심한 진행에서 아주 철저히 그리고 매우 주의깊게 계획되고 상세히 세분화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Santiago의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개인주의적인 자기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의존적인 색채를, 그것도 특히 소년과의 대화에서 매우 강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본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하루종일 질릴 썸 치고 노인은 아이가 주는 coffee를 마시고 포구 밖으로 노를 저어 외해로 나간다.

노가 물을 밀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노인은 ‘큰샘 - great well’ 까지 온다. 이때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제비갈매기가 있다. 노인의 심층은 “바다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라마르』라는 것이다. 그는 바다를 언제나 여성적인 것으로 보아 사랑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He always thought of the sea as la mar which is what people call her in Spanish when they love her.

Sometime those who love her say bad things of her but they are always said as though she were a woman. Some of the younger fishermen, those who used buoys as floats for their lines and had motor - boats, bought when the shark livers had brought much money, spoke of her as a contestant or a place or even an enemy. But the old man always thought of her as feminine

and as something that gave or withheld great favours, and if she did wild or wicked things it was because she could not help them. The moon affects her as it does a woman, he thought.<sup>26</sup>

노인은 또한 바다에 대해 남다른 승양의 엄을 지니고 있다. 바다에서 소리지르는 일은 불경한 것으로 본다. 그도 소리지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않는 것을 예의로 안 노인은 '그것을 존경' 하는 터였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는 새벽을 느끼고 날치가 수면 위를 힘차게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는다. 해가 바다위에 떠오르려고 할 때 심하게 반사되어 오는 햇살에 눈이 찢린 듯 아픔을 느끼며 드리운 낚시줄이 조류에 밀리지 않게 자신이 설정한 일정한 깊이에서 먹이가 부유될 수 있도록 애쓰는 작업에 여념이 없다. 치밀하게 계산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재수(행운)를 맞이하겠다는 생각은 노인의 한결같은 일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재수가 자기에게서 떠나 있거나 없는 지 내심으로는 걱정이다. 그래도 자신이 얻을 재수(횡재)와 이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재수에 대비하고 있는 Santiago 노인의 다음 말을 주목하자.

But, he thought, I keep them with precision. Only I have no luck any more. But who knows? Maybe today. Every day is a new day. It is better to be lucky. But I would rather be exact. Then when luck comes you are ready.<sup>29</sup>

이 말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가르침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사실 그는 재수있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자는 자세이지 재수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과정을 횡재,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비길데 없이 진지한 노인의 결의를 보게된다.

이윽고 노인은 10 Lbs쯤 되어 보이는 다랑어를 잡는다. 그는 그것을 우선은 미끼로 쓸 요량이지만 지금의 그는 백길 물속의 낚시 끝에 입힌 정어리에 돛새치가 걸려들어 왔으면 싶은 마음에 더 열중하여 낚시대로부터 어서 가벼운 반응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기다림에 초조하다. 그런데 잠시후 노인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거센 무거움을 감지하는 것이다. 기다리던 재수의 날이 온 것이다 : 85일째가 되던 날이었다.

노인은 이제 줄을 등에 맨 채 고요한 외해의 바다 위를 고기가 끄는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만은 실패를 몰라야 한다는 스스로의 각오 때문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기우마저도 외부로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조금만 더 삼켜, 아주 꿀꺽 삼키지 그래.”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느슨해지려는 자신의 결의를 스스로 다그친다. 그는 낚시에 걸려든 고기가 수면으로 떠 올라 그의 작살(harpoons)을 받을 차례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잠시 후 “낚시를 문 것은 너다” 하고 말하면서 있지도 않은 여유를 찾기도 한다.

노인에게 있어서의 한가로움이나 여유와는 정반대의 긴장이 있고 그때마다 그는 그 시간을 자성(自省)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본다. 그는 지금 고기에게 끌려 잡자기 곤두박질이라도 할까봐 두렵다. 그러다가도 이번에는 고기의 생김새를 궁금해 하기도 하고 포구에 두고 온 소년을 몹시 보고 싶어하기도 한다. 다음 순간, 노인은 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

“나도 저를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도 나를 어쩔 도리가 없을테지.” 이 노인은 자신과 고기와의 대결을 운명적인 것으로 미루어 버린다. 가끔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에 젖기도 하는 그는 “늘 고기 생각을 해야지” 하고 쇠잔해가는 기력을 강렬한 의욕으로 바꾸어 놓을 명분을 떠올리는 일에 여념이 없다.

“늙으면 혼자 있을 게 아니야.” Santiago의 말 속에는 이처럼 언제나 빈자리가 있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구경도 하고.” 라면서 추억속의 돛새치를 떠올리는 것이다 : 소년과 함께 한 기억 속에는 기진맥진해 버린 암컷의 주위를 그 자신이 드리운 낚시에 걸려 떠나지 못하고 무던히도 따라붙던 수컷이 마지막에는 공중을 높이 뛰어올라 날개를 열어 전신을 흰히 내보이고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암컷을 죽임으로 해서 수컷을 암컷에서 떼놓았던 일이 고기잡이를 하는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다고 노인은 추억하는 것이다. 그가 대결을 벌였던 상대(고기)에 대한 이 같은 연민의 정도 잠시일 뿐, 노인은 그 암컷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부리를 붙들고 정수리를 거의 거울의 뒷면 색깔” a colour almost like the backing of mirrors.<sup>47</sup>이 되도록 쳐서 죽이고는 아이와 함께 “용서를 빌고는 죽석에서 고

기를 칼질”해 버렸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이 움직일 수 없는 어부이며, 따라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고기와 자신의 관계가 비켜갈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재차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When once, through my treachery, it had been necessary to him to make a choice, the old man thought. His choice had been to stay in the deep dark water far out beyond all snares and traps and treacheries. My choice was to go there to find him beyond all people. Beyond all people in the world. Now we are joined together and have been since noon. And no one to help either one of us. 47 - 8

죽을 때까지 고기와 같이 있게 될 운명을 두고, 노인은 다가올 결전을 예비하는 데 있어 자신의 나약함과 부친 힘을 걱정한다. 배를 향해 날아와 너무 지쳐 쉬고 있는 새의 장래가 “바다로 마중나올 때” the hawks that come out to sea to meet then. 51에 달려있다고 걱정도 해본다. 자기의 운명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바다에서 여럿의 친구를 만들게 했다. 날치와 거북이가 그렇고 하늘을 나는 warbler가 그렇다.

노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fish’ 와 ‘brotherhood’ 를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그에게는 자연을 포함하여 온갖 피조물이 그가 말하는 brotherhood의 정신 속에 다 속해있다.

그런데 피조물에 대한 노인의 그같은 감정은 특히 작은 새 ‘warbler’ 에 대한 ‘sense of brotherhood’ 에서 유독 애뜻하게 드러나 있음을 본다.

A small bird came toward the skiff from the north. He was a warbler and flying very low over the water. The old man could see that he was very tired.

The bird made the stern of the boat and rested there. Then he flew around the old man's head and rested on the line where he was more comfortable.

‘How old are you?’ the old man asked the bird. ‘Is this your first trip?’

The bird looked - at him when he spoke. He was too tired even to examine the line and teetered on it as his delicate feet gripped it fast.

‘It's steady’, the old man told him. ‘It's too steady. You shouldn't be that tired after a windless night. What are birds coming to?’

There hawks, he thought, that come out to see to meet them. But he said nothing of this to the bird who could not understand him anyway and who



would learn about the hawks soon enough.

'Take a good rest, small bird', he said. 'Then go in and take your chance like any man or bird of fish', 51

그는 이런 monologue를 통해서 꾸준히 자신의 투쟁의식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새가 가버린 이후에 그가 풀어 놓고 있는 말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즉 노인은 계속해서 갖가지 상념에 젖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생각들은 모두가 목적 달성을 위해 긴장을 풀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인만의 특유한 노력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행동 양식을 풀이하는 말을 보면 휴식의 순간에 감지되는 불안이 행동의 순간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외해의 탁 트인 공간에서 혼자만이 느끼는 외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거의 필사적이 된다. 그가 상대의 처지를 걱정하기까지 하는 매우 엉뚱한 생각을 펴 보이기도 한다: 고기에게 무엇인가 먹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고기를 형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도 고기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자신에 대한 맹렬한 요구이며 자신이 죽을 수 없는 그런 대결이란 뜻일 것이다. 그의 소망은 간단하고 분명하며 단호하기까지 하다.

'Fish', he said, 'I love you and respect you very much. But I will kill you dead before this day ends.' 51

노인의 이같은 정적인 사고에 웅크리고 있는 동적인 맹렬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자신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고기가 제 나름의 계획을 착실히 잘 진행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고 있는 자신의 계획이란 것이 임기응변일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다. 그는 고기가 물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자신은 바다에 떠 있을 수 밖에 없다. 것처럼 노인의 선택은 좁은 것이다. 이런 그에게 Manolin 소년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노인은 심신의 희생과 활력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노인은 고기와의 대결에서 점차 적극적인 견제력을 행사하려 든다. 그는 자식의 유약함을 타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

기에게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로 행동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know now, anyway, he thought. I wish I could show him what sort of man I am. But then he would see the cramped hand. Let him think I am more man than I am and I will be so. I wish I was the fish, he thought, with everything he has against only my will and my intelligence.<sup>60</sup>

노인은 자기와 대결을 벌일 고기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의지와 지혜”에 맞서 보는 고기가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대결할 상대가 몸집의 크기만을 놓고 보아도 자신과 고기의 대결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애써 알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노인은 자기와 상대할 고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점을 강조한다.

돛새치가 마침내 수면위로 떠 올랐을 때 Santiago는 잠시 겁에 질린다. 그것은 노인이 타고 있는 배보다 2 feet나 더 긴 대어 - big fish - 였기 때문이다.

“The line rose slowly and steadily and the surface of the ocean bulged ahead of the boat and fish came out. He came out unendingly and water poured from his sides. He was bright in the sun and his head and back were dark purple and in the sun the stripes on his sides showed wide and a light lavender.

He sword was as long as a baseball bat and tapered like a rapier and he rose his full length from the water and then re - entered it, smoothly, like a diver and the old man saw the great scythe - blade of his tail go under and the line commenced to race out.”<sup>58</sup>

돛새치가 물위에 떠 오른 이후부터 노인의 결의는 드세게 표출되고 있다: ‘I did not know he was so big.’ ‘I will kill him though.’<sup>61</sup> 노인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견딜 수 있나’를 보여줘야 한다고 결심한 나머지 눈앞의 도전에 맞설 힘의 축적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추스리고자 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원천’에 대한 회고를 여기서도 되풀이해서 시도하고 있다.

마침 고기와 ‘Juegos’<sup>64</sup>도 이틀째 접어들고 있을 때였다. “미풍이 불었지만 이제는 햇빛이 뜨거워졌다.” The sun was hot now although the breeze

was rising gently.61라는 작가의 개입이 있는 후(필자는 이 말이 이 이야기의 다른 단계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매우 유의(有意)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노인은 잠이 들어 꿈속에서 사자 lions를 보았으면 하기도 하고 사자가 어째서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가 Why are the main thing that is left?62 하고 회의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식으로 이야기의 말머리를 돌리면서 Santiago 노인은 New York yankees의 외야수 Dimaggio를 생각했다. 그리고 Casablanca에서 하루밤 하루날에 걸친 Cienfuegos출신 검둥이와의 팔씨름을 생각하는 것이다. 날치떼도 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보면서 노인은 지금 고기가 끄는대로 하염없이 따라가고만 있다. 해가 저물자 고기와 씨름하며 지샬 차가운 밤을 준비할 요량으로 미끼로 쓰려던 다랑어를 먹어두려는 생각도 한다. 그는 바닷속의 고기와 하늘의 해와 달, 별, 이 모두를 사랑하고 있으며 친구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다시 한번 소년이 그림다. 낚시줄의 사리를 물에 축여줄 아이가 있으면 싶다. 이윽고 노인은 자기더러 '여보게 늙은이, 자네나 겁없이 자신을 가짐세.' 라며 스스로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노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을 다해 스스로를 위무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고기는 수면에 떠올라 드디어 회전하기 시작한다. 노인은 고기가 잡아끄는 줄이 팽팽하도록 잡아당긴다. 그는 고기의 회전거리를 좁혀나갈 심산인 것이다. 노인은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피로하다. 그러나 그의 안간힘은 고기가 '제 운명을 알게' 하고 죽인다는 전율을 극하는 다짐으로 보다 확고한 결의를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I am not religious'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기를 못잡고 죽을 수 없다는 자기 목표 때문에 'God help me to endure' 80라고 소원해 본다. 주기도문도 아베마리아도 외울 수 있지만 당장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없다고 변명하고는 나중에 위우겠노라고 말하면서 다시 외운 걸로 해 두자고 생각을 밀어 버린다.

노인은 날(Scythe blade)을 세우고 물 밑을 지나가는 고기의 비스듬히 누운 꼬리를 보면서 그 놈의 심장에다 준비한 작살을 꽂아야 한다고 버르고 있다. 노인은 'Be calm and strong, old man.' 하고 자신의 전의를 이렇게 다지고 있다:



Maybe this time I can get him over. Pull hands he thought. Hold up, legs.  
Last for me, head. Last for me, you never went. This time I'll pull him over  
……84

헤밍웨이에게 있어서 “폭력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터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다.”<sup>93)</sup>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대개 그 승리는 죽임을 담보한 모험이 따르며 일방의 승리는 항상 상대방의 죽음에 의해서 온전한 것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라는 것도 쟁투의 과정이 정당하고 명예로와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There must be a cognizance of death both from the standpoint of killing and from that of being killed ; ……He must realize that it is not that one dies but how one dies that is important. And equally important, that it is not that one kills but how one kills.<sup>9)</sup>

동시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죽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노인의 말에서 Code Hero의 rules에 충실한 Santiago를 확인하는 것이다.

‘Fish, You are going to have to die anyway. Do you have to kill me too.’  
That way nothing is accomplished,……84 Never have I seen a greater, or more beautiful, or a calmer or more noble thing than you, brother. *Come on and kill me, I do not care who kills who.*84 - 5(Italic mine)

노인은 혼잣말로 상대에게도 자기가 주장하는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만은 오래 오래 온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마침내 노인은 작살에다 온 몸의 중량을 실어 돛새치의 옆구리를 찌른다. 순간 그는 작살이 돛새치의 살을 뚫고 들어갈 때의 마찰을 감촉하는 것이다. 노인의 뇌리속에 잠재된 이 치명적인 폭력의 행위로 희생되는 돛새치의 최후를 헤밍웨이는 이렇게 설명(미화)해 두고 있다.

5) Violence, …… , is the condition in which a man must learn to live. Walter Allen, 앞책, p. 94.  
6) *Twentieth Century views.* ed. by R. P. Weeks. Prentic - 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962. p. 116 from Confiteor Hominen : Earnest Hemingway's Religion of man by J. Waldmeir.

……the fish came alive, with his death in him, and rose high out of the water showing all his great length and width and all his power and his beauty. He seemed he fell into the water with a crash that sent spray over the old man and over all of the skiff.<sup>87</sup>

Santiago는 그가 밀어넣은 작살의 측수에서 고기의 심장을 감촉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돛새치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임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다. 혼미해져가는 의식을 가다듬고 노인은 ‘이제 아무 흥미도 없는 노역’에 들어간다고 했다 : 이물(bow)과 고물(stern), 그리고 배허리(thwart)에다 돛새치를 동여맨다. 어부로서의 자부심도, 승자로서의 득의에 찬 쾌감도 없이 노인은 위엄(dignity)을 모조리 잃은 패자와 함께 나란히 가고 있다. 이제는 포구의 모래톱까지 애써 잡은 돛새치와 동행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 2.

지금까지 필자는 Santiago 노인과 돛새치의 쟁투에서 나타난 노인의 개인적인 행동 양식을 주고 관심사로 하였다. 그런데 그같은 노인의 행동 중심에는 언제나 Manolin 소년이 등장하고 있으며 헤밍웨이는 노인과 이 소년의 관계가 특히 각별함을 애써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는 바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 소설의 전반과 후반에서 이들 두 사람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본다. Philip Young은 Manolin 소년과 노인의 관계를 종전에는 “여성들이 맡아했던 기능을 소년이 떠맡고 있다”<sup>7)</sup>고 평가했으며 Melvin Backman은 소년과 노인의 관계를 일러 ‘a new gentleness’를 성취했으며 Santiago라는 人物을 통해서 소박한 人間美를 창제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But now in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boy, Hemingway achieves a new gentleness. This turning to male companionships seems characteristically American, recalling the paired Huck Finn and Jim, Natty Bumppo and Chingachgook, Ismael and Queequeg. Curiously, with the exception of Ismael, they are all variations of primitives. And in Santiago Hemingway

7) Philip Young, *Ernest Hemingway*, p. 96 Rinehart Company, Inc., New York.

has created as fine a primitive as the twentieth century has revealed, one who seems worthy of comparison with Mark Twain's Huck Finn or Jim. But the old man is more richly endowed than most primitives bearing the name of Saint James, who was fisherman and martyr, he strangely unites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sup>8)</sup>

Manolin 소년은 주점의 주인인 Martin의 도움으로 출어 전날 노인에게 저녁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출어하는 당일날 아침에도 소년은 노인을 위해 coffee며 미끼로 쓸 sardines를 준비해 주기도 한다. 85일째의 행운을 빌어 주었던 것도 그였고 배를 밀어 노인을 전승했던 것도 Manolin 소년이었다. 후반에 이르면 노인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를 보아서 소년은 커피와 음식을 권하는가 하면 심하게 상처난 노인의 손을 보고는 줄곧 울기까지 한다. 약국에 가서 노인의 손에 바를 ointment도 가져오고 깨끗한 셔츠를 준비하는 것도 소년의 몫이 되고 있다. 소년은 노인이 하루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과 더불어 나란히 낚시하러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노인과 소년의 관계는 도제의 관계이며 소년은 노인을 마치 “양아버지”<sup>9)</sup> (adopted father)처럼 모시고 있음을 본다. 사실 노인에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년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I wish the boy was here.’, ‘I wish I had the boy.’ 와 같은 표현들이 그가 외로울 때도, 쓸쓸해할 때도, 위기의 순간을 맞아 초조해 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도 노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년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인이 Manolin을 안 것은 5살적 부터의 일이었다.

고기와 사투를 벌이던 첫날 밤, 나이들면 혼자 있지 말아야 해 ‘No one should be alone in their old age’ 하고 중얼거렸던 푸념도 사실은 그 대상이 Manolin 소년이었고 그때도 노인은 변함없이 ‘I wish the boy was here.’, ‘I wish I had the boy.’ 라는 말로 고독을 떨쳐버리려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노인은 이 모든 일이 부질없는 짓인 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며 맘을 고쳐 먹는다.

8) Melvin Backman, *Hemingway :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 p. 143 ed. by Carlos Baker. 1962.

9) Carlos Baker, *Earnest Hemingway :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p. 163.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2.

노인에게 있어서 소년은 '일종의 부적' a kind of talisman<sup>10)</sup>과 같은 것으로 자신에게 강요되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실마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소년은 노인에게 있어서 휴식처이고 활력의 재충전 장치나 다름없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년의 노인에 대한 감정이 그러했듯 Santiago 노인도 또한 그 깊이를 짚 수 없으리만큼 소년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Santiago가 Manolin을 그리워하는 장면은 tuna를 먹을 때도 'I wish the boy were here and that I had some salt', 고기와 팽팽한 줄다리를 할 때도 'If the boy was here he would wet the coils of line he thought Yes. If the the boy were here. If the the boy were here.' 77 변함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시도하고 있는 이같은 두가지의 노력은 결국 자신이 지금 고기와 대결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친 힘을 소년이라는 힘의 샘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기력을 소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고기와 대치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모면해 보고자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노인은 고기와 대결할 자신의 준비를 마친 셈이 된다. 그러나 노인은 어부라는 직업인으로서의 행위와 생물에 대한 살생의 죄의식간에 놓여 있는 인간적 갈등 때문에 잠시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Everything kills everything else in some way. Fishing kills me exactly as it keeps me alive.98 - 9.

그런 후에 노인은 자신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기를 죽인 것이 아니며 어부의 궁지에 의한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죽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답식의 독백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한 상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지금의 자신을 확인하려 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 "The boy keeps me alive I must not deceive myself too much" 99. 그는 우선 '소년이 자신을 살린다' 고 생각하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노인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시간을(상어와의 격전) 앞에

10) Carlos Baker, 앞 책, p. 164.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자신의 한계를 한꺼풀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점과 소년에게 거는 기대심리가 한층 더 뚜렷해졌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노인의 나약한 자아 '이미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결집된 책략의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점 또한 매우 뚜렷한 변화라면 변화라 하겠다.

그는 상어가 떼놓은 고기의 살점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하고는 야비한 상어를 응징할 준비를 끝내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을 유지시켜 주었던 소년이 주는 '이미지'와 자기가 즐겨 꿈꾸어 온 Africa 해안의 lions의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노닐고 있는 lions의 이미지는 lions 그 자체가 지닌 형언하기 어려운 이미지 뿐만 아니라 노인의 少時的,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의 Manolin 소년과 같은 나이일 적에 아프리카의 해변을 지나다가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년과 아프리카의 사자 그리고 노인의 추억은 사자꿈 내부에서 노인의 소시적 꿈과 함께 녹아 있다.

He was asleep in a short time and he dreamed of Africa when he was a boy and the long golden beaches and the white beaches, so white they hurt your eyes, and the high capes and great brown mountains. He lived along that coast now every night and in his dreams he heard the surf roar and saw the native boats come riding through it. He smelled the tar and oakum of the deck as he slept and he smelled the smell of Africa that the land breeze brought at morning. Uuually when he smelled the land breeze he woke up and dressed to go to wake the boy. But tonight the smell of the land breeze came very early and he knew it was too early in his dream and went on dreaming to see the white peaks of the Islands rising from the sea and then he dreamed of the different harbours and roadsteads of the Canary Islands.<sup>22</sup>

Santiago 노인이 그리는 꿈에는 폭풍도, 여자도, 큰 사건도, 큰 고기도, 싸움도, 힘 겨루기도, 자기 아내에 대한 꿈같은 것은 이미 먼 이야기이다. 있다면 해안의 포그, 조그마한 마을, 소년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곳, 아침이면 노인이 소년을 한쪽 발을 잡아 잠을 깨우고, 여기에다 여러 마리의 사자가 황혼의 해변에서 놀고 있는 아프리카의 꿈에다가 그 사자를 소년처럼 사랑했다는 Santiago 노인의 그림음이 영겨있는 그런 꿈이 남아있다. 부연하면, Manolin 소년과 Santiago



노인의 관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Solidarity와 Interdependence'의 Theme은 여러 가지 사건(이들테면 lions, baseball, hand - westling)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지만 인간적 유대의식과 상호 의존의 정신에 대한 가치는 비극적 과정 'You violated your luck when you went too far outside' p.107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urhans jr.의 평가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Since 1937, Hemingwa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 and independence : The Old Man and the sea is the culminating expression of this concern in its reflection of Hemingway's mature view of the tragic irony of man's fate : that no abstraction can bring man a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olidarity and interdependence without which life is impossible : he must learn it, as it has always been truly learned, through the agony of active and isolated individualism in a universe which dooms such individualism.<sup>11)</sup>

Santiago 노인의 이같은 변화해 가는 인간애적 정서의 변화 과정은 상어떼 sharks와의 대결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의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Santiago 노인은 상어떼의 출현이 그 어떤 결과를 몰고 올 것인가 하고 벌써부터 염려해 온 터였다. 그래서 그는 일찍 '상어가 오기만 하면, 너나 내가 모두다 가없는 꼴이 된다.' 'If sharks come, God pity him and me.' 64고 걱정했던 것이다.

고기가 상어떼에 물어뜯기고 있을 때 노인은 자기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 노인이 성취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부의 자존심으로 온갖 시련을 넘어 마침내 얻은 것이 상어떼에게 무방비 상태로 먹히우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겨우 얻어낸 소망스런 결실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런 성공은 결코 성공 이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헤밍웨이의 주인공이 거두는 성공은 실질적인 성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패배를 모르는 불패자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Santiago 노인은 이런 말을 한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he said.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96

11) Clinton S. Burhans, Jr. *The old man and the sea : Hemingway's tragic vision of man*. pp. 150 - 151. *Critique for four major Novels* ed. by C. Baker.

통상적인 관념에서 보면 노인은 패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게임의 윤리에 어긋난 행위가 없었는지 자신을 되돌아본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고기를 죽인 것이 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보다 실천적인 현실논리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추상으로 밀어버린다. 그는 이때 노인은 이제 그 결의에 의해 뒷받침된 고기와 싸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잡다한 문제와 관련지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의 삶, 즉 인생살이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한다. : 그는 Manolin 소년을, 동리의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마을을 생각했다. 손에 난 상처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해 보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었으면 죽겠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이때였다.

그는 모질게 격파당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돛새치를 향해 덤비는 상어떼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포구어로의 안전한 귀향만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처절을 극한 모진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고, 대적해 왔던 상대를 압도해 버린 이후 마침내 얻어낸 승리였지만 'job' 와 'moral' 간에 놓여 있는 심리적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몰고 온 결과에 깊이 회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의식에서 빠져나오고자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Do not think about sin 98.며 자신의 죄의식을 지우려고 애쓴다. 그래도 그것이 쉽지 않자 어부로서의 출생과 어부로서의 긍지를 내세우고 San Pedro도 어부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번에는 'I' 에 의한 주관적인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You' 에 의한 제2인칭의 객관적인 설명으로 Santiago의 행위를 정당화 해보려는 작가의 개입을 목격하게 된다.

Perhaps it was a sin to kill the fish. I suppose it was even though I did it to keep me alive and feed many many people. But then everything is a sin. Do not think about sin. It is much too late for that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paid to do it. Let them think about it. You were born to be a fisherman as the fish was born to be a fish. San Pedro was fisherman as was the father of the great DiMaggio……. He thought much and he kept on thinking about sin. You did not kill the fish only to keep alive and to sell for food, he thought. You killed him for pride and because you are a fisherman. You

loved him when he was alive and you loved him after. If you love him, it is not a sin to kill him. Or is it more?<sup>98</sup>

돛새치를 죽임으로 해서 노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은 상어(떼)와의 대적시에 나타난 노인의 결의와는 매우 다른 일면이 있다. 'I killed him self-defense' …… 'And I killed him well.' 98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노인은 Dentuso를 죽인 것이 정당 방어라고 생각하며 돛새치(Marlin)를 죽였을 당시 숙연했던 심사와는 아주 다르게 죄의식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그같은 상대와는 'I'll fight them until I die' 107.라는 분노의 결의만이 필요할 뿐이다. 노인이 돛새치를 죽인 것에 대해 것처럼 상념에 젖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어 Dentuso에 가한 자신의 비정한 폭력을 정당방위 in self defense.<sup>98</sup>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sharks의 행동양식을 헤밍웨이가 신봉하는 game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Joseph Waldmeier가 정의하는 헤밍웨이의 행동 철학에서 우리는 매우 엄격한 일련의 생존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Hemingway's philosophy of philosophy of action ; a man is honest when he acts honestly, he is humble when acts humbly, he loves when he is loving or being loved. Thus, taking an awareness of the rules as he taken an awareness of the abstractions for granted, Hemingway concerns himself primarily with the presentation of procedure.<sup>12)</sup>

위의 글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노인이 돛새치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정신은 생사를 건 쟁투에서조차도 상대의 위엄 'dignity' 을 평가한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는 공평한 권리를 인정했던 것 (see 84-5)은 작가가 말하려는 game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겠다.

노인은 상대역이었던 돛새치를 'brother' 이라고 호칭했다. 나중에는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미안하게 됐다, 고기야' 라며 상대를 포용하는 동지애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에 대한 그 철저했던 적의가 용서와 사죄와 사랑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반전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지금은 죽어서 생명이라는 활력을 잃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돛새치와는 자기가 형

12) Joseph Waldmeier. p. 147. ed. by Carlos Baker. 1962.

제애 'brotherhood'의 관계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생사를 건 맞수였지만 둘은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런 적대 관계였으므로 이들에게 접근해 온 상어떼 sharks는 Santiago/Marlin의 공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노인과 돛새치가 대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Santiago가 적대의식만을 가진 채 Marlin과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재차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망망대해에서 지친 나래를 잠시 접고 고물 stern에 앉은 새도, 잔잔한 바람 brisa도 그는 사랑했다. 해와 달, 별까지도 고기처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머물자 크게 안도했던 것도 바로 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서 그는 상어(떼) sharks를 용서할 수 없었던가?

노인은 배의 코스를 제대로 잡아놓은 후에 상어에 의한 돛새치의 피탈을 안타까워하는 상실의 분노를 이렇게 외치고 있다.

'They must have taken a quarter of him and of the best meat,' he said aloud. 'I wish it were a dream and that I had never hooked him. I'm sorry about it, fish. It makes everything wrong.' 102

헤밍웨이의 규칙(code)<sup>13)</sup>에는 위엄(dignity)을 갖는다는 것이 행동 윤리의 제

13) cf 현대 영미소설 연구 : 헤밍웨이의 文學과 思想. pp. 358-70. 신아사. 1982.

There is a definite code by which characters are judged and by which they judge each oth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code is relevant…… Courage, honesty, and skill are important rules of the code, but it is these human attributes as determined by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To be admirable, from the standpoint of this morality, is to admit defeat, to be a good sportsman, to accept pain without an outcry, to adhere strictly to the rules of the game and to play the game with great skill. To be repugnant and contemptible is to violate any of these requirements. - Delmore Schwartz

The code of his best heroes was the code of……primitive courage and honorable death. Life whether in the Michigan woods, the battlefield, or the bull ring, was a test of superhuman endurance and will power, a "good show" performed by giants on the verge of tears. - John Aldridge

This is the Hemingway "Code" - a "grace under pressure". It is made of the controls of honor and courage which in a life of tension and pain make a man and distinguish him from the people who follow random impulses……and are generally messy, perhaps cowardly, and without inviolable rules for how to live holding tight This cod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ode hero"……presents a

1차적 덕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행동 규범상의 제 규칙, 즉 Courage, Honesty, Skill, Endurance, etc. ; 에서 일탈된 행위는 언제나 경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어떼의 행동양식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접합인 것이다. 게다가 Galanos가 죽으면서까지도 뜯은 고기를 삼키는 꼴을 보고 그 비열한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결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최선과 용기와 인내가 가미된 성실성이었으므로 노인은 노에 묶은 칼로 상어의 정수리를 겨냥하여 연골이 쪼개지는 치명타를 상어에게 가하면서 이렇게 저주 'Go and see your friend, or may be it's your mother' 102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Marlin의 살을 처음으로 뜯어간 것은 푸른 등지느러미로 물을 꿰으며 달려온 Mako였다. 그 놈은 40 Lbs의 살점을 뜯어내고는 Santiago의 작살에 맞아 밧줄과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에 온 것이 Dentuso였고 그 다음이 galanos, 그리고 뒤이어 귀상어 'shovel-nosed shark'가 나타나지만 노인은 이제 칼도 뺏기고 남은 것은 갈고릿대가 있을 뿐이다.

고기의 반은 이미 뜯겨져 나가고 날이 어두운 후에 5, 6의 상어(떼)가 밀려올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날은 어두워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ill you do now if they come in the night? 106. Santiago 노인의 내심의 소리는 "Fight them", "I'll fight them until I die" 107로 집약된다. 노인은 이미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는 결의를 통하여 최악의 순간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다짐해 둔 바 있었다.

노인은 배가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그도 이제 피로를 느낀다.

생각해 보면 잃은 것만은 아니었다. 'half fish'야 하고 돛새치를 일러 자조 섞인 푸념을 하면서도 상어를 죽임으로써 불로소득을 노렸던 그들의 폭거를 응징한 자신의 역할을 자랑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위안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85일째의 황재를 상어떼 때문에 놓친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Nothing"…… "I went too far." 110이라고 소리지르고 있음은 상심한 마음을 털어버리려는 노인의 안간힘이랄 수 있으며 자조적 위안이랄 수도

---

solution to the problems of Nick Adams……and for Hemingway it is about the only solution…… As Hemingway once put it, "there is honor among pickpockets and honor among whores. It is simply that the standards differ" - Philip Young

있다. “바다도 거의 팔 것처럼 했다.”는 것이 노인의 판단이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살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노인의 포기할 수 없는 바람이었던 것이다. 고기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횡재를 포기한다고 함은 노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그는 차마 평생의 생업을 단념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었으리라. 그래서 노인은 그도 무사 He was not dead 107하고 배도 무사 She's good 110함으로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횡재를 굳게 기약해 보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포구를 향해 ‘키’를 잡았을 때 노인은 전후를 가릴 수 없으리만큼 치져 있었다. 배가 포구에 닿자 노인은 감아 묶은 돛을 매고는 오두막으로 향하다가 잠시 발을 멈춘다. 그리고는 고물뒤에 남아있는 돛새치의 텅빈 잔해를 본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돛새치의 잔해가 주는 의미가 과연 헤밍웨이의 Heroism에서 보는 것과 같은 허무나 상실의 의미로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소설이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Half-fish라고 부르는 고기는 사실 뼈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뼈만 남은 고기의 잔해가 Santiago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노인 자신만의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말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인의 푸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Fish that you were. I am sorry I went too far I ruined us both. But we have killed many sharks, you and I, and ruined many others. How many did you ever kill, old fish?107

이제 더 이상 낚 고기가 아니며, ‘고기란 지난 날의 너일 따름이야’ 이 지경이 된 너와 이런 너를 얻기 위해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상어를 ‘죽였고 망쳐 줬나’ 하는 말이 그것이다. ‘고기가 너무 형편없는 꼴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고기에게 말을 걸 수도 없어서 떠올린 생각’ 이라고 했다. 이 말에는 우리-You (=fish) and I-가 합쳐 상어를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만족감 같은 것이 숨어 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부딪쳐온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는 그만 정리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비극적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언급을 회피한 채로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을 덮어버리려는 듯 이런 진술을 한다. : “I want too far.”

110라는 말이 그것이다. Santiago의 이 말은 이 소설의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그의 행동은 벌써 무심결에 ‘no thoughts nor any feelings of any kune’ 110. 포구를 향해 뱃머리를 틀어두었는가 하면, 그가 몸을 던져 휴식을 취할 침대가 회미한 기억 속에 최종의 바램으로 남겨 놓았던 것이다.

소설의 초반에 소년이 노인에게 어디로 가느냐 “Where are you going?” 고 물으면 노인은 태연히 “far out” 라고 대답한다. 소년도 노인을 따라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Manolin의 아버지는 내해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 ‘an in shore man’ 이었으므로 노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큰샘 ‘the great well’ 을 지나서 외해에 나와 있었으며 dolphins(떼)를 보자 큰 고기 ‘my big fish’ 가 어디엔가 가까이 있음을 직감하는 것이다. 노인과 고기의 만남, 그것은 돛새치로서도 운명적인 조우였고 노인으로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난 후 둘 모두는 ‘brotherhood’ 에 의해 뭉쳐진(=joined together) 하나의 운명체로 상어떼 ‘Sharks’ 와의 긴 긴 싸움과 동시에 귀향의 먼 뱃길을 달려오는 것이다.

Santiago 노인은 상어떼를 약탈의 제전에 불러들인 것이 그의 제1차적인 선택인 외해로의 출어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어떼의 폭거에 저항했지만 돛새치의 살점이 뜯기어 나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자탄하고 사과하고 애석해 했다.

“I should not have gone so far, fish”, “Neither for you nor for me. I am sorry fish” 102.

Santiago는 그의 선택을 행운(=luck)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해로 나왔을 때 그의 선택이 몰고온 행운은 이미 깨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돛새치의 대가리 부분(the forward half)은 이미 심하게 뜯기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노인은 자기에게 남게 될 행운의 몫을 맞이할 준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You may have much luck yet. And I'd like to buy some if there's any place they sell it”, .....107 그러나 작살이며 칼, 부러진 키, 손잡이에서 몽둥이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찢어진 손으로 행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노인은 잘 알고 있다. 노인도 이제는 더 싸우고

싶지 않다. 'I hope so much I do not have to fight again 108' 그러나 그래도 그는 다시 싸웠고 이번에는 마침내 이 같은 싸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인은 무엇이 그대를 초죽음이 되게 이토록 심하게 두들겨 주었더라 말인가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Nothing", "I went too far" 110.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회의를 마감코자 한다. 그때 노인은 이미 내해에 들어와 있었고 포구의 Terrace 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노인이 포구에 닻을 내린 그 이튿날 소년은 매일처럼 살았던 오두막에 들어서야 비로서 노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된다.

소년을 보자 노인은 이런 말을 한다. 그놈들이 나한테 이긴거지 - They truly beat me. - 고기가요? 할아버지한테 이긴 건 아니에요 - He didn't beat you. Not the fish. - 그렇지. 정말 그래. 진 건 나중이야 - No truly it was afterwards. - 네가 여간 아쉽지 않았어 - I missed you - 114-5 노인은 소년에게 동리 사람들이 날 찾더냐? - Did they search for me? - 라고 물으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절해의 조각배 속에 몸을 싣고 있는 존재가 아님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정 많은 마을에 살고 있다 - I live in a good town 106 - 는 자각이 있었고 아프리카의 해안이 꿈에 보이며 '토인의 배가 파도를 헤치며 저어 오고' 잠자리에서는 사자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곳, 거기에 자신을 걱정해 주는 이웃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Santiago 노인에게 있어서 꿈이 있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도, 외로움(Isolation)이 있는 곳도 아니다. 그곳은 재생의 희망이 있는 곳이며 자아의 희생이 기약된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진작부터 노인은 그곳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왔으면서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다. 상어에 의한 돛새치의 상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채수의 운이 다한 것으로 생각했던 Santiago에게 인간애의 나눔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한 보살임을 인식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도 소년도 여기서 더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애를 확인하는 것이다.

C. Baker는 Santiago노인의 이같은 일련의 행적을 일러 그가 비극적 과정을 통하여 도덕적 승리를 쟁취했다고 하였다.



Urged on by pride, by the love of his trade, by his refusal to take continuing bad luck as his portion, and by a resurgent belief that he might win, Santiago made trial of the impossible. In the tragic process he achieved. The moral triumph.<sup>14)</sup>

부연하면, C. Baker가 말하는 이른바 Santiago 노인이 쟁취했다는 도덕적 승리,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를 시련에 의함이 아니라 불운이라는 비극적 여과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얻어낸 신념의 승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여기서 노출되고 있는 온갖 시련은 비극적 운명이라는 아이러니에 빠진 인간이 필사의 각오로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헤밍웨이의 보다 “성숙된 인간관의 반영” - reflection of Hemingway's mature view of the tragic irony of man's fate - <sup>15)</sup>이라 해도 좋겠다.

포구에 닿았을 때 그에게는 도움의 손길도 없었다. 어깨에 돛을 멘 그는 언덕에 주저앉아 길 아래를 내려다 본다. ‘고양이 한마리가 제 일을 보러 길 저쪽을 지나고 있는 것이’ 노인의 눈에 띈다. 쓸쓸함과 외로움이 노인의 마음에 상층 작용을 일으켰음인지 노인은 그저 길바닥만 가만히 내려다 보고 있다. 고양이가 지나가버린 텅빈 길, 노인은 오두막 shack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나 쉬고 있다. 다음날 Manolin 소년이 오두막에 왔을 때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How much did you suffer?” 하고 소년이 물으면 “Plenty” 하고는 노인은 다시 잠들고 그 옆에 소년이 앉아 있다. 노인의 꿈결에 나타난 짐승이 한 마리의 고양이 a cat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사자 lions임을 주목하게 된다.

### 3.

헤밍웨이에게 있어서 바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고 있는 더없이 넓은 자연이었고 ‘사랑’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일러 아름다운 바다의 서사시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을 그려낸 그의 열정과 성격으로 보아 자신의 철학적 명상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헤밍웨이가 이 작품을 두고 한 말

14) Carlos Baker. 앞 책, p. 171. in *Hemingway's Ancient Mariner*.

15) Clinton S. Burhans, jr.의 앞 책, p. 151.

에 이런 글이 있다.

I tried to make a real old man, a real boy, a real sea, and a real fish, and real shark. But if I make them good and ture enough they would mean many things. The hardest thing is to make something really true and sometimes truer than true.<sup>16)</sup>

우리는 이 글에서 보다 'real' 한 삶의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자 하는 작가의 투혼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속에 인생이 있고 문학외에 인생이 있었다면 헤밍웨이에게 있어서 *The old man and the sea*는 그의 문학과 인생 모두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 일관된 자기 철학을 추구한 것이며, 보다 완숙된 기법으로 자기 철학의 어제와 오늘을 은유적으로 집성한 것이었다 해도 좋겠다.

Santiago 노인은 성격상으로 볼 때 대단한 영웅적 기질 - heroic proportion - 을 지니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 자신의 말처럼 - 'a strange old man' - 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정통하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불운을 극복하려는 결의에 살았다. Indian Camp에서의 Dr. Adams 곁에 아들 Nick가 있었던 듯이 노인의 옆에 그림자처럼 같이 했던 Manolin 소년은 'big fish'에 대한 추억을 나눌 노인의 어엿한 동료였다. 겨우 다섯살의 나이에 노인과 함께 한 추억담에서 '달콤한 피냄새가 나의 온 몸에 풍기던 생각' I can remember.....and the sweet blood smell all over me.10이 난다고 했던 소년이 지금은 고기잡이라는 직업 정신에도 투철한 청년 'You are already man.' 10이 되어 있는 것이다. 노인은 이같은 소년 Manolin을 자신의 눈 안으로 끌어넣고 싶다. 소년이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여러가지 제의나 뜻이 자신의 금지에 어떤 손상을 끼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년이나 자기 자신에게 겸손해진 자기를 깨닫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으면 가서 도와 드리죠' If you hook something truely big, we can come to you aid' 11라는 소년의 말이 암시하듯, 노인은 그와는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The old man the sea*는 헤밍웨이가 주인공 Santiago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16) Time, 13. Dec. 1954. York note p. 24. Longman. York press

의 성실성과 겸허, 인내와 용기 그리고 위엄을 토대로 삶에 대한 심원한 사색의 단면을 그려 보여준 작가 자신의 총체적 문학정신의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돛새치와의 대결에서 인간의 능력과 인내 - What a man can do and what a man endures - 는 물론 죽고 죽이는 투쟁까지도 결국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설명이 말하려는 어의(語意)를 보아도 헤밍웨이가 끝내 패배를 부정하고만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승리나 패배를 초월하는 인간 정신의 강인한 일면을 그의 극기적 철학 이념으로 통찰해 보려는 심오한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Santiago 노인이 힘주어 외쳐온 것과 같이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 Man is not made for defeat……A man can be destroyed but no defeated - 라는 신념도 죽을 때까지 필사적인 투쟁 - I'll fight them untill I die - 을 벌이겠다는 결의도 그러한 정신에 순응하는 명예로운 행동을 이었다고 이해된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에게서 결국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인간적 고독과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Santiago가 그렇게도 힘주어 주장한 결의를 통해서 헤밍웨이가 내심에 품고 있었던 범신론적 우애 정신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Santiago 노인이 승리했다고 보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패배했다고 보는 사람도 또한 없을 것이다. “잠든 그 Santiago는 지쳐보인다”라는 짧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자의 피로한 모습이 더 이상 피로한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제 혼자 Alone가 아니라 여럿 plural중의 하나이며 이제는 나 Santiagoe도 인간애적 자각에 새로이 눈을 떴다라는 외침같은 것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Santiago 노인의 이같은 경험은 Man is not made for defeat라는 항변(?)을 남기며 사라져 가는 순교자의 모습 a form of martyrdom<sup>17)</sup>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individualism’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interdependence’의 관계에 설 수 밖에 없는 운명적 행동 반경을 가진 세계에서 한 인간의 ‘individualism’의 집념에 찬 행위에서 발견되는 ‘Solidarity’의 고통스런 비극의 제 과정에서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진정한 삶

17) Linda W. Wagner ed., *Ernest Hemingway : Five Decades of Criticism*. p. 315  
Michigan state Univ. Press. 1974.

의 고뇌하는 Image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노인 Santiago의 모습에서 안도와 정화된 심신의 평정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본다.

Anthony Quinn이 주연하고 Jud Taylor가 감독한 영화 *The old man and the sea*(1991)에서 Roger O. Hirson/play writer은 ‘망을 잘 다루고 낚시줄과 작살을 잘 다룬다고 훌륭한 어부가 되는게 아니며, 어부는 항상 고기를 생각해야 된다. 고기를 죽이는 것이 어부의 주업이지만 고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용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라고 훈계하는 아버지 옆에선 Santiago 노인의 소시적 회상을 극중에 삽입했다.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이 중편의 소설이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님을 알라는 말로도 들리다가 마침내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生者의 편에 선 오늘의 당신이 잠시 자신을 뒤돌아 보는 것도 어떠한 물음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1961년 7월 2일, 그는 엽총으로 목숨을 끊어 마침내 행동주의자로서의 문학과 인생을 끝내며 특이한 삶을 청산했다. 장례식이 있던 날 신부는 전도서 ‘One generation passeth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th but the earth abideth forever.’<sup>18)</sup> 1장 4절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

18) Bible